

2020 Special Exhibition
역사관 개관 5주년 기념

죽음의 태국-버마 철도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한국인” 특별기획전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람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사관 개관 5주년을 기념해 정성껏 준비한 이번 특별전도 부득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개관 일정에 맞춰 개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페이지(<https://museum.ilje.or.kr/>)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오니, 관람객 여러분의 너른 양해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오후 5시30분까지 입장)
- 휴관일 : 월요일 • 관람 및 주차 : 무료 • 관람문의 : 051-629-860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39 Homepage <http://museum.ilje.or.kr>

FoMo

Forced Mobilization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Spring 2020

Vol.1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떨어진 동백꽃을 추모하며

시인 황동준(재단 운영관리국장)

적도赤道 아래
타 들어가는 모래밭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부러진 야자수 모래밭
씨 다시 돋은지 일흔여섯 해
먹먹한 가슴아!

한밤에 휘몰아치는
폭풍우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노을빛 석양이 아쉽듯
초로草露와 같이 스리져간
육천여 붉은 동백
베티오(Betio)의 꽃을 추모한다

하루 이틀 사흘
사지死地로 쏟아지는 포탄은
어느 심장을 겨누 비수였는지?

더 이상 이 땅에
무서운 전쟁戰爭이 없기를
희생자의 이름을 묻어
타라와(Tarawa)의 영혼을 추모한다

천둥인들
번개인들
이처럼 지옥불 같으리

-태평양의 작은 섬 타라와에서-

끌려온 징용의 땅
데어진 발바닥 터진 핏빛
산호섬 환초環礁는
동백꽃보다 더 붉어

※ 타와라 전투는 77년 전 일본이 점령한 타와라 베티오 섬 탈환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벌인 전투다. 1943년 11월 20일 ~ 23일 나흘간의 전투에서 총 6,300여 명이 전사했고, 강제동원된 조선인 1,200여 명도 희생됐다.



황동준 재단 운영관리국장(사무처장직무대리)은 1982년 지방공무원을 시작으로 강원도청, 내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에 서 봉직했다. 1995년 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3년 간 과거사 관련 업무를 경험했으며, 행정안전부 유해봉환과장으로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정부 등을 상대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위해 힘썼다. 황 국장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재단은 강제동원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유족의 아픔에 함께하며 평화와 인권신장을 추구하는 신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FoMo

Forced Mobilization

CONTENTS



여는 글 떨어진 동백꽃을 추모하며

- 04 위패관 ‘기억의 터’ 개관
- 06 어린이·청소년 체험교육
- 08 인문학 특강
- 09 제1회 강제동원 UCC 공모전
- 10 유족지원사업
- 12 강제동원 피해 민원창구 ‘만남의 장’
- 14 유해실태조사
- 15 오키나와 유해 공동발굴
- 16 일제 강제동원 수기집 및
위원회 번역 책자 발간기념회
- 18 유해발굴·봉환 사업 문화행사
- 20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 21 (사)하이난천인강희생자추모회 업무협약
- 22 피해자 증언 수집 안내
- 23 재단 출판사업 안내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통권 제14호(계간) | 신고번호 부산남, 바00005(2017년 3월 3일) | 발행일 2020년 4월 24일 | 발행인 김용덕
편집인 박철규 | 기획·편집 하태현 장민성 | 발행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디자인 ㈜광장A&C T.051-583-8722
주소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위패관 ‘기억의 터’

글 김선영 | 사진 장민성

위패관 ‘기억의 터’ 개관 ... 첫째 위패 815위 모서
희생자 원혼 위로하는 추모공간이자 교육공간 기대

위패관¹⁾ ‘기억의 터’가 지난 2월 19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5층에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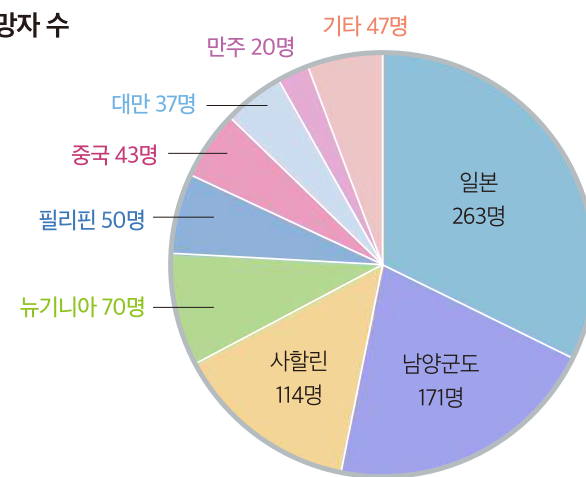
2008년 8월, 일제 강제동원 유족 단체가 위패 봉안 문제를 청와대에 건의하며 위패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올해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과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추모 공간이자 일반인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위패관 ‘기억의 터’가 완공되었다.

1,097㎡(332평) 규모인 이곳은 희생자 위패 815위, 소녀상·노동자상 홀로그램, 추모영상, 강제동원 관련 기증 사진 400여 점 등으로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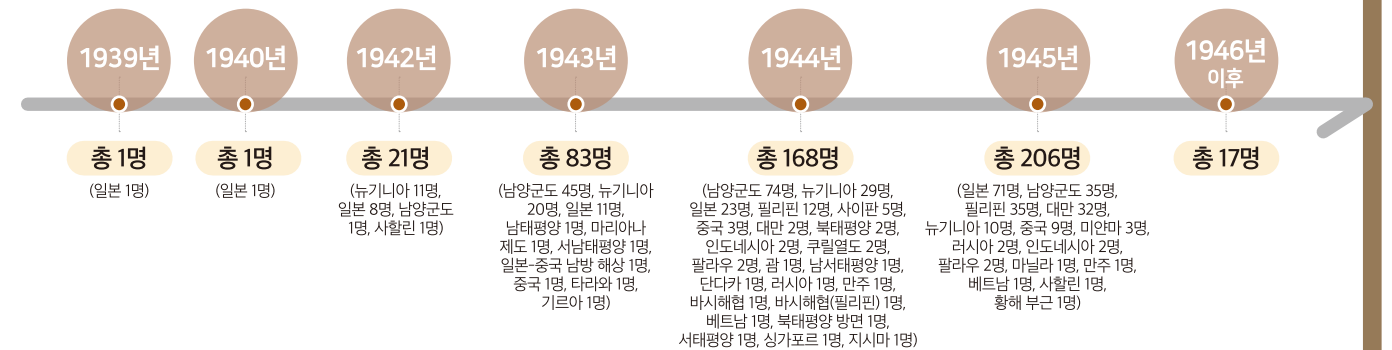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이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관람 및 주차는 무료.

‘기억의 터’ 위패 815위를 통해 확인된 강제동원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해 장소별 사망자 수



· 연도별 사망자 수 (사망 날짜 확인 가능한 497명 대상)



1) 위패관은 법률상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로,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 기간 또는 안치 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곳을 의미한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일본(263명), 남양군도(171명), 사할린(114명) 순이며, 사망 날짜를 알 수 없는 피해자(318명)가 가장 많이 동원된 지역은 일본(148명), 사할린(97명), 중국(29명)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가장 많이 동원된 지역이며, 사할린 또한 전쟁 말기 노동력 수급을 위해 탄광이나 광산으로 조선인들을 다수 동원한 지역이었다. 가족(형제 혹은 친족 추정)이 함께 동원되어 피해를 겪은 건도 확인되었다. 총 10건(20명)이 해당되며 같은 날 동시에 사망한 사례도 기록되어 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실시된 이후 1939~1945년에 발생한 사망자는 총 480명이며, 연도별로 분류해 보면 1943년(83명), 1944년(168명), 1945년(206명) 등 전쟁 말기로 갈수록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남양군도와 일본 내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기억의 터’ 815위 명단 중에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전체 위패 815위 중 92위가 해당되며, 야스쿠니 신사에 유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62명이고 유골이 국내로 송환된 피해자는 총 2명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으나 유골은 없는(혹은 미확인된) 피해자가 총 24명이며, 기타 유골 위치를 알 수 없는(야스쿠니 신사에서 송환했으나 유족이 받지 못한 경우 포함) 피해자는 총 4명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대부분 군 관련 피해(군인·군속)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합사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은 남양군도(34명)이다. 92위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자의 전체 연령대는 만 17세 이상부터 만 35세 미만이며, 20대 초·중반 사망자가 가장 많다. 20대에 사망한 피해자가 많고 전쟁 막바지인 1944~45년 희생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어린이 · 청소년 체험교육 6종 선배



글 이정섭

역사관에서는 올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6종을 선보인다.

개인 및 단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장수 프로그램인 '내 책상 위의 소녀상'을 비롯해 '태극기 휘날리며'와 '카드 속 일제강점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성됐고, 강제동원을 모티브로 '무드등(燈)'을 만들어보는 '별 헤는 밤'이 신규 편성됐다. 이들 프로그램은 역사관 홈페이지(<http://museum.ilje.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8명 이상 단체의 경우 우선

전화(051-629-8633)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원하는 일정과 시간대에 교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출발! 역사관 탐험대'는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부 꿈길(<http://www.ggoomgil.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체험활동지'는 책자형 체험활동지 대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상설전시를 관람하면서 자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말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 교육 프로그램 소개 >

1. 내 책상 위의 소녀상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일본군'위안부'의 탄생 배경과 문제점 등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참가자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석고 부조를 직접 만들어보는 순서로 진행된다.

- 대상 : 초등 5학년~고교 3학년 개인(가족 포함) 및 단체
- 신청 : 역사관 홈페이지 및 전화(051-629-8633)

2.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가 처음엔 어떤 모습이었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고 태극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상징물인 태극기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독립운동과 함께한 태극기는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보고, 태극기 네임태그를 직접 제작해보며 태극기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 대상 : 초등 5학년~고교 3학년 개인(가족 포함) 및 단체
- 신청 : 역사관 홈페이지 및 전화(051-629-8633)

3. 카드 속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이 벌어지기 전·후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강사가 강의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주요 사건, 제도, 인물 등을 모티브로 한 카드를 제작하여 보드 게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대상 : 초등 4학년~초등 6학년 개인(가족 포함) 및 단체
- 신청 : 역사관 홈페이지 및 전화(051-629-8633)

4. 별 헤는 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일제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노무동원, 군인동원, 군무원동원, 성(性)동원)에 대해 배워보는 프로그램이며,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을 모티브로 평화·인권 무드등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 대상 : 연령 제한 없이 가족 단위 접수
- 신청 : 역사관 홈페이지 및 전화(051-629-8633)

5. 출발! 역사관 탐험대

박물관 관련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는 진로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에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역사관 전시실을 탐방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꿈길(교육부)을 통해 가능하다.

- 대상 : 중 1학년~고교 3학년 학교 대상
- 신청 : 꿈길 홈페이지(<http://www.ggoomgil.go.kr>)

6. 모바일 체험활동지

역사관 상설전시실에서 자율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역사관 안내 데스크와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역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체험이 가능하다. 난이도별 3단계(초·중·고급)로 제작되었다. 연말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 대상 : 연령 제한 없이 관람객 누구나
-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진행

인문학 특강

올해 일제 강제동원 주제 5강 마련

글 이정섭

역사관 인기 교육 프로그램인 ‘인문학 특강’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씩 총 5회에 걸쳐 개최된다.

‘인문학 특강’은 역사관이 2016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성인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누적 참가자가 1,200명에 이르고, 회당 평균 60명 이상이 수강하는 인기 강좌이다. 그동안 김홍신 소설가, 이태진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최태성 EBS 역사강사,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이상 가나다순) 등 폭넓은 스펙트럼의 저명강사들이 특강을 빛냈다.

올해도 ‘일제 강제동원’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진 학자, 언론인, 법조인 등이 특강을 알차게 채워줄 예정이다.

올해 ‘인문학 특강’은 일제 강제동원의 유형과 역사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의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일제 강제동원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금 더 폭넓은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됐다.

강연은 직장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휴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며, 향후 역사관 홈페이지(<http://museum.ilje.or.kr>)에서 구체적인 일정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강연의 눈높이와 쾌적한 청강 환경을 위해 고교생 이상부터 수강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 강사 소개 >

**6월 김광열 광운대학교 교수**

서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근·현대 동북아 관계사와 일본의 민족적 마이너리티 문제 등 근현대 일본 및 동북아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다.

**7월 최영호 영산대학교 교수**

부산 영산대학교 일본비즈니스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한·일 관계 및 대일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저서 및 논문을 집필하였다.

**8월 길윤형 한겨레신문 기자**

한겨레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KBS 1TV ‘시사직격’과 ‘역사저널 그날’에 출연한 바 있으며,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와 ‘안창

남, 서른 해의 불꽃 같은 삶’ 등을 저술하였다.

**9월 강혜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의 행정과 일본인의 지배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10월 임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KBS 1TV ‘시사직격’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밤 김제동’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제1회
강제동원
UCC 공모전

재단은 올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1회 강제동원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 대상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주제로 한 웹드라마, 뉴스, 애니메이션, 샌드아트 등 영상 콘텐츠로, 작품 내용에는 강제동원의 과정, 피해 실태, 귀환 관련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모 작품 선정 기준은 사실성, 기획력, 창의성, 활용도로 2차에 걸친 심사, 선정 과정을 거친다.

선정된 작품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향후 다양한 재단 목적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 자격은 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전국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단체로 참가 가능하다.

제1회 강제동원 UCC 공모전 안내

- **응모주제**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강제동원, 귀환 등)
 - 단,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UCC의 경우 타 기관에서 진행 중 이므로 응모 대상에서 제외함
 -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발간 구술자료집 등 활용
- **작품규격** : 상영시간 3분 이내
 -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샌드아트 등 모든 영상 콘텐츠 (단, 코덱 없이 재생 가능한 파일로 제출)
- **응모방법**
 - 동영상파일 : 유튜브 URL 및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 및 동의서 : 재단 홈페이지(<https://ilje.or.kr>)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파일제출 시 작품이름_출품자(혹은 팀 이름)로 제출
- **응모자격** : 전국 대학(원)생 (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포함)
 - 개인 및 단체(2~5인), 개인 혹은 단체 당 2개 이상 제출 불가
- **응모기한** : 2020. 5. 4.(월)까지
 - 결과발표 : 2020. 5. 18.(월)
 - 작품 접수량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상식 일정 및 대상은 별도 통지
- **심사기준** : 사실성(30), 기획력(20), 창의성(20), 활용도(10)
- **문의** : 공모전 담당자(02-721-1817, mobilization2020@gmail.com)

2020년 유족지원사업 ‘시동’

미귀환 희생자 유족 대상 지원금 지급

글 이병희



2020년도 유족지원사업이 3월 2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6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선정 과정을 거쳐 9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8년 미귀환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에 이어 2019년 자녀에게 지급했던 사업의 연장이다.

재단은 한·일 과거사 청산의 출발점으로 청구권 수혜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이자수익으로 유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금조성과 유족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의 관심 제고와 향후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3년간의 사업 자금은 포스코가 출연한 기금의 이자수익과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에서는 재단에 100억 원의 출연을 의결했고, 2014년 6월에는 재단이 설립됐다.

포스코는 2016년 8월 1차로 30억 원을 출연했고, 2017년 12월 2차로 30억 원을 출연했다. 재단은 2018년 5월 특별·자문위원회에 유족지원방안을 보고하고 2018년 10월에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미귀환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 56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2019년 10월에는 중장기 기금 이자수익금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1월

부터 2020년 2월까지의 미귀환 희생자의 생존 배우자와 자녀 266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오는 9월에는 미귀환 희생자의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다수의 신청을 예상하여 고령자와 저소득자를 우선하는 등의 공정한 지원 방침을 세워,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 성격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 200명의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90세 이상 유족, 2순위 85세 이상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 85세 이상 유족 중 차상위 계층, 4순위 80세 이상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5순위 그 외 유족 중 고령자 순이다.

유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추도, 학술연구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유족 지원을 통한 유족 위로와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20년 유족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 : 미귀환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현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1순위 유족(배우자 및 자녀)으로 신청 시점 현재 생존 중인 분에 한함

※ 중복 지급 제한 : 한 희생자에 대하여 유족 지원금 추가 수령 불가

2. 신청기한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오후 6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신청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확인 불가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가. 2020년도 유족 지원금 신청서 1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다. 신청인 확인서(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라.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본)

마. 신청인 명의의 거래통장 사본 1부(지원금 지급용, 계좌번호 및 계좌명 확인용)

※ 반드시 입금가능여부 확인 요청(입금 불가 계좌 발생시, 사업일정 지연 발생)

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 1부

• 필요시 제출 서류 : 재단의 제출 요구 또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가. 희생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1부(예 : 제적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등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제출 요청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1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본)

4. 신청방법 : 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 보내실 곳: 우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마빌딩) 유족지원사업 담당자 앞

5. 지급안내 : 개별 통지

6. 지급사항 : 1인당 50만원 수준(1회 한정. 신청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

7. 기타 문의사항 : 기획홍보국 유족지원사업 담당자(☎ 02-721-1813)

※ 재단 홈페이지: www.ilje.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01

강제동원 피해 민원창구 ‘만남의 장’

강제동원 피해자 소통 창구 [만남의 장] 정례화, 활성화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무기연기, 사태 종료 후 재개 예정

글·사진 이병희

재단이 2019년 10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개최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 민원창구 ‘만남의 장’이 피해자, 유족들의 소통 창구로 제구실을 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014년 설립 당시부터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지 사망자 유족, 생존귀환자 유족, 원폭피해자 유족, 사할린 피해자 유족, 피해자 당사자, 유족단체장, 사회 저명인사 등을 위촉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와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유족, 강제동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 대한 소통 강화의 목소리가 대두되어 지난해 10월부터 ‘만남의 장’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2018년 11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의해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등에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가 제소한 재판에 대해 약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원고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 유족단체장들의 관심이 폭증했던 것이 ‘만남의 장’ 설치의 계기가 되었다.

‘만남의 장’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에 걸쳐 열리는 데, 짝수 달인 2019년 10월과 12월에는 서울, 인천, 경기권의 피해자, 유족들 약 50여 명과 서울 재단 회의실에서 만남을 가졌다. 홀수 달인 11월에는 지방 순회 ‘만남의 장’이 열렸는데, 각 지자체 회의실, 자문위원의 지역 유족회 사무실 등을 무료 임차하는 등의 협조를 받아 4회에 걸쳐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02



03



04



05

- 01 서울 ‘만남의 장’
- 02 부산 ‘만남의 장’
- 03 전주 ‘만남의 장’
- 04 광주 ‘만남의 장’
- 05 춘천 ‘만남의 장’

‘만남의 장’에서는 재단 업무 소개와 설명, 국회에 발의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법안 추진 현황, 유족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신청서 접수 등이 이뤄졌다.

모든 상담에는 상담 책임자인 이재철 운영관리국장과 담당 직원이 참석하였고, 지방 순회지였던 부산, 광주, 춘천, 전주도 동시 방문하였다.

올해도 흑한기인 1월과 12월을 제외한 2월부터 짝수 달은 서울 재단 대회의실에서, 홀수 달은 지방 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재단 특별위원, 자문위원 가운데에서 ‘만남의 장’ 개최를 요청한 곳을 우선으로 방문, 운영할 계획이다.

2월은 코로나19 국내 유입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단 사무실로 매주 피해자, 유족들이 찾아와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추진 경과, 유족 복지지원 사업 등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이에 답하였다.

하지만 3월에도 이미 지방 순회 도시가 정해졌지만,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무기연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단에서는 피해자, 유족, 일반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는 대로 지방 순회를 재개하여 피해자, 유족들의 궁금한 점에 대답해 나가고자 한다.

‘만남의 장’ 운영을 통해 재단 업무 이해도 확산, 정부 정책 신뢰도 제고, 국민 통합 기여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2020년 [만남의 장] 추진 계획

- **기본방향** : 재단 - 피해자 간 의사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민원상담 창구를 재단(서울 소재)에 설치, 만남의 정례화
- **상담자** : 재단 이사장 또는 운영관리국장 등
- **대상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그 유족(단체) 및 일반인 등
- **상담내용** : 강제동원 관련 제반 사항
- **상담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까지(1시간)
※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한 상담 신청자 접수, 상담일 지정·통보 사전 연락 없이 참석 가능
- **지방 순회** : 고령 민원인의 편의 제공 차원, 격월(홀수 달)로 시·도별 순회 민원상담 병행(서울·인천 등 수도권 제외) ※ 시·도별 [만남의 장] 장소는 회의실 임차

미봉환 유해 실태조사 ‘박차’

올해 일본 홋카이도 및 중국 하이난 대상
천인갱 조사부터 보존까지 통합 추진키로

글·사진 이정은



01 천인갱에서 발굴한 유골을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영락제 외부 모습
02 온습도계, 환온환습기 등 관리 장비 없이 유골들이 보관되고 있는 영락제 내부 모습

재단은 올해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미봉환 유해에 대한 실태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사업은 △홋카이도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실태 및 실지조사 △중국 하이난 천인갱 희생자 유해 실태조사 △천인갱 현장 보존 및 관리 용역 3가지로 나뉘 추진되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기 직전까지 과정을 진행시킨다는 목표다.

재단은 이번 사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회복을 목표로 일본정부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시의성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

일본 홋카이도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실태 및 실지조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작성된 △한인 노무자 등 한인 유골 관련 실태 및 실지조사(일본 후생성) △일본 내 시설 등 보관 한국인 유해실태표(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를 바탕으로 유해 안치 시설 전면 재

확인 등을 추진한다. 주요 안치 시설은 네무로 시(根室市)의 대덕사(大徳寺), 아시베쓰 시(芦別市)의 수부사(秀岳寺), 도마리 촌(泊村)의 법륜사(法輪寺) 등이다. 이번 유해조사의 전 과정은 향후 유해 조사 사업의 표준이 될 ‘유해조사 매뉴얼’ 제작의 토대가 된다.

중국 하이난 천인갱 희생자 유해실태 조사·천인갱 현장 보존 및 관리 용역

중국 하이난(해남도) 남정촌에는 많은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인갱이 있다. 1943년 일본이 하이난 침략에 동원한 조선인 수형자 약 2,000명 중 1,200여 명이 학살·매장된 천인갱은 (사)하이난천인갱희생자추모회(2019년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의 전신인 민간 기업이 약 20년간 유지·관리해왔다. 재단은 지난 2월 추모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천인갱의 유해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천인갱 현장 보존·관리까지 통합 추진한다.

오키나와 유해 공동발굴

오키나와 모토부 켄켄 지역 유해 발굴 참가
사진잡지 ‘라이프’ 통해 조선인 희생자 확인

글·사진 이유경



재단은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일본 오키나와에서 실시한 ‘한국·일본·타이완·오키나와 인들에 의한 공동발굴’에 참가했다.

이번 공동발굴은 ‘켄켄 유골 발굴 공동실행위원회’ 주최로 관련 연구자, 활동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실행위원회 구성은 한국의 (사)평화디딤돌과 일본의 ‘모토부 켄켄의 유골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모임’(오키나와),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홋카이도)로 이뤄졌다.

이번 공동발굴은 ‘히코산마루(彦山丸)’호 사건과 관련된다. 1945년 1월 22일, 모토부 토구치 항에 정박된 군수물자 보급선 ‘히코산마루’호가 미군의 공격으로 폭파, 좌초된다. 그 과정에서 ‘히코산마루’호 승조원을 구조하기 위해 가던 선박 공병 대원들까지 희생된다. 이후 미국 시사 사진잡지 ‘라이프’의 1945년 5월 28일자를 통해 토구치 항에 세워진 묘표 14개가 확인된다. 묘표 사진을 통해 ‘히코산마루’호 승조원 12명이 확인됐고, 그 중 군속으로 동원된 조선인 2명(明村長模, 金山萬斗)의 존재까지 파악됐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44여단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한편, 재단에서는 5일 동안 진행된 발굴 작업에 참가하고 이어진 발굴 보고회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

2019년 일제 강제동원 수기집 및 위원회 번역 책자 발간기념회



“우리나라 조선 청년 부모 슬하를 떠날 적에...
죽자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고생이라...”

재단,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국내·외 학술연구자료 보급을 위한
‘일제 강제동원 수기집 및 위원회 책자 일본어판’ 발간



글 김희근 | 사진 장민성

재단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일제 강제동원 수기집 및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번역 책자 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

2015년 위원회가 해체된 후 중단되었던 일제 강제동원 관련 책자의 번역·발간사업을 완결하고, 강제동원 문제의 국제사회 인식 확산 및 국내·외 학술연구자료 보급 등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재개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강제동원 체험 수기를 담은 원본 자료를 기증받아, 전문가의 별도 감수·해제 후 본 출판사업을 통해 별도의 단행본으로 발간하였다.

발간된 책자는 총 5종으로, 위원회 당시 번역되었으나 조직 해체 후 발



재단 김용덕 이사장

간되지 못하였던 구술기록집 2종(일본어판)과 보고서 2종(일본어판), 그리고 재단에 의해 신규 발굴된 일제 강제동원 수기집 1종(한국어판)이다.

구술기록집 2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생한 구술 채록을 통해 출간되었던 『뚝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귀신 될 뻔 했네(ポンポン船に乗って帰る途中、海の幽霊になるところだったよ)』 및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있었구나(朝鮮という私たちの国があったのだ)』의 일본어 번역판이며, 보고서 2종은 위원회 당시 강제동원 관련 주요 피해 사실 및 유형, 국

가(지역)별로 진상조사된 후 출간되었던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진상조사(朝鮮人B C級戦犯に対する真相調査)』 및 『하와이 포로수용소 한인 포로에 관한 조사(ハワイ捕虜収容所における韓人捕虜に関する調査)』의 일본어 번역판이다.

그리고 재단에 의해 신규 발굴된 일제 강제동원 수기집 『태평양전쟁실기집(太平洋戦争實記集)』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후 일본 오키나와(沖縄) 인근 자마미섬(座間味島)에서 미군에게 포로로 연행되었다가 귀환하신 故 장윤만 님의 체험기를 동생이 등서(謄書)한 원본 기록으로, 이를 가족들이 보관하다 재단에 기증하며 약 70여 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기록이다.

발간기념회에는 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강제동원 관련 번역 사업을 협력해온 강제동원진상규명(究明)네트워크*(일본의 여러 시민단체와 활

동가, 학자들로 구성, 공동대표: 히다유이치·안자코 유카) 관계자, 번역 공헌자, 원본 자료를 기증하신 강제동원 피해자 故 장윤만 님의 자녀 장현자 님, 국내 발간위원 및 감수자, 강제동원 학계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제동원진상규명(究明)네트워크: 일본의 각지에서 수십 년간 활동하던 일제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들이 2005년 결성한 연대조직으로, 개인 및 단체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협약체임.

김용덕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재단은 2019년을 시작으로 중단되었던 구 위원회 발간 책자의 번역 사업을 재개함과 동시에 일제 강제동원 전반에 대한 다양한 학술자료 및 교육자료 발간 등을 앞으로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들이 강제동원 분야에서 미약하나마 작은 디딤돌이 되어 국내·외 많은 연구진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진실과 기억의 역사로서 그 몫을 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쟁이란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자처럼 전쟁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의 기억을 듣는 일은,
우리가 진실을 전하며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활동이 될 겁니다.”

다케우치 야스토 (竹内康人)
강제동원진상규명(究明)네트워크 연구원



재단 - (사)평화디딤돌 공동주최 '잊혀진 영혼들' 성료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봉환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

글·사진 이유경

재단의 목적사업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봉환 사업과 관련한 문화행사가 2019년 12월 12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사)평화디딤돌과 공동주최로 마련한 이번 '잊혀진 영혼들: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과 귀환' 행사는 △1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발굴·귀환 기록 다큐멘터리 '길고 긴 잠' 상영 △2부: 대담 '유골을 말하다' △3부: 플레이백 시어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삶을 말하다' △4부: 추모공연 정태춘의 '정용자 아리랑' 순으로 진행됐으며, 홋카이도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115구의 귀환 여정을 기록한 손승현 사진작가의 '70년 만의 귀향' 사진전도 함께 개최됐다.



01



02



03



04



05

특히, 2부 대담 시간에는 도노히라 요시히코(殿平善彦) 일본 강제연행강제노동희생자를 생각하는 모임 공동대표, 정병호 (사)평화디딤돌 이사장이 대담자로 나섰으며, 마크 셀던(Mark Selden) 미국 코넬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나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도노히라 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에게 있다”며, “역사적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자각해야 하는데 일본 내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정병호 이사장은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한·일 문제로만 한정 짓지 말고, 인류 보편적 인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다른 아시아 피해 국가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국제적 연대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셀던 교수 역시 “강제동원 문제는 중국, 대만과의 연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함께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사과와 배상·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봉환에 대한 한·일 양국 민간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유족과의 의견 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관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 01 문화행사 '잊혀진 영혼들' 단체사진
- 02 사진전 '70년 만의 귀향'
- 03 추모공연
- 04 다큐멘터리 '길고 긴 잠' 상영
- 05 플레이백 시어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삶을 말하다'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 용역 추진

남양군도 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등 5건



글·사진 장성환

재단은 지난 2월 10일 ‘2020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완료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강제동원의 실태를 비롯하여 관련 제도,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연구용역의 심의는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연구자 선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활동도, 기대효과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실시한 이번 학술연구용역 공모는 심사결과 총 9건의 과제 중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군수동원법과 군수회사 지정제도 및 조선인 강제동원-광운대학교’ 등 5건이 선정됐다.

•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학술연구용역 기관별 과제

연구수행기관	연구과제
광운대학교	태평양전쟁기 일본의 군수동원법과 군수회사 지정제도 및 조선인 강제동원 - 일본과 조선에서의 제도 운용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남양군도 광산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
평화디딤돌	조선인 군노무자 지역별 동원실태 : 오키나와 강제동원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조선인 군노무자 작업장 배치 현황 - ‘유수명부’ 및 ‘육군군수부군속명부’를 통해 본 일본 육군 선박군의 조선인 군속 동원 -
청암대학교	노무동원 경로별 성격 : 국민징용, 할당모집, 관 알선

재단-(사)하인천인갱희생자추모회 MOU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실태 및 실지조사 협력체계 구축



글·사진 이유경

재단은 지난 2월 27일 (사)하인천인갱희생자추모회(이하 천인갱추모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실태 및 실지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재단의 김용덕 이사장, 이재철 기획홍보국장과 천인갱추모회의 배영란 이사장, 문용수 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용덕 이사장은 “천인갱 관련 사업은 일제강점기 피해 사실의 명확한 증거로 남아있는 만큼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천인갱 유해발굴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중국과의 외교 상황에 따라 실현 여부가 판단되는 만큼 재단 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추모회에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영란 이사장은 “추모회에서 20여 년 동안 천인갱을 지켜오면서 해온 일이 많지만 이번 재단과의 협약식을 계기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과 기록



피해자 권오숙 기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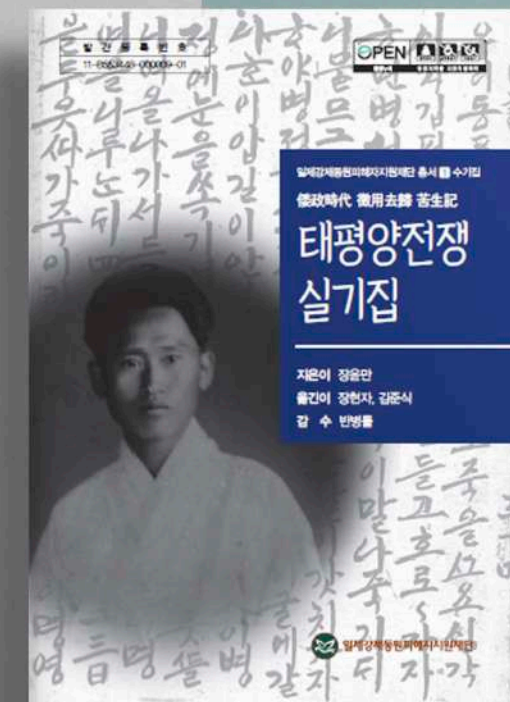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수집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 방문 인터뷰
- 문 의 처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교육홍보부 ☎ 051) 629-8634

※ 피해 생존자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피해자의 기록을 역사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수기집 출판



故 장윤만 님 수기집
(태평양전쟁실기집)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료를 출판해드립니다!

- 출판대상 : 강제동원 피해자의 수기집, 체험집 등 원본 사료류
- 진행절차 : 피해자/유족 출판 신청 → 발간위원회 심사 → 출판
- 문 의 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 02) 721-1825

※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